

##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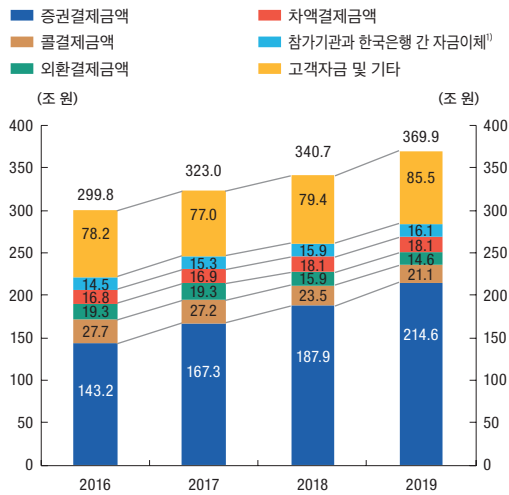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sup>41)</sup>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 분야에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증권결제자금 증가세 지속

2019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369.9조 원으로 2018년에 비해 8.6%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콜 및 외환결제자금이 감소하였으나 증권결제자금은 기관 간 RP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자금 결제규모 대비 증권결제 비중은 2018년 중 55.2%에서 2019년 중 58.0%로 확대되었다.

그림 III- 19. 한은금융망 결제 규모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19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502억 원으로 2018년보다 23.2%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sup>42)</sup>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4,32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일중RP<sup>43)</sup>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8년보다 21.9% 증가한 2조 6,181억 원을 기록하였다.

41)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42)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43)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 12.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 (일평균)

	2017	2018	2019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318.2	328.5	432.1	+31.5
일중RP	2,055.9	2,147.9	2,618.1	+21.9
계	2,374.1	2,476.4	3,050.2	+23.2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8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인프라<sup>44)</sup>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sup>45)</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sup>46)</sup>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각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외채권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은 PFMI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의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중앙거래당사자(CCP)<sup>47)</sup>는 PFMI 등 국제기준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으나 유동성리스크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국내은행은 일중 유동성 관리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sup>48)</sup>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위기 발생 시 비상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결제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44)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4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46) CPMI-IOSCO는 PFMI를 보완하기 위해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47)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중앙청산소로 번역하기도 한다.  
48)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하기 위해 일중 일반자금이체 및 콜거래시스템 자금이체 금액의 60% 이상을 참가기관 간 상계처리되는 보통지급지시로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지급결제제도 혁신 관련 연구 수행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 지급결제 혁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암호자산 「리브라」의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리브라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전망 등을 점검하고 해당자료를 금융당국 등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sup>49)</sup>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대응계획 등을 담은 G7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의 테스트를 단계적으로 실시<sup>50)</sup>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증권대금동시결제에 대한 분산원장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모의 테스트에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분산원장 등 관련 기술의 발전, 암호자산 시장 상황, CBDC 관련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 이행

한국은행은 국제기준(PFMI)<sup>51)</sup>에 맞춰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제공비율(이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향후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표 III-13.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

(%)			
2019.8.1. <sup>1)</sup>	2020.8.1.	2021.8.1.	2022.8.1.
70	80	90	100

주: 1)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추가된 적격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주금공 MBS),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 및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증권이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풀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sup>52)</sup>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 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였다.

49)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가치 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을 의미한다.

50) 2017년 9월~2018년 1월 중에는 은행 간 자금이체를 대상으로, 2018년 9월~2018년 12월 중에는 소액결제를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5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Principle 4: Credit risk: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52) 기존 적격증권(한국은행 대출용 적격담보증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로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유사시 한국은행 대출담보로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표 III- 14.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li> </ul>	(좌 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금공 MBS (2018년 말까지 한시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금공 MBS (상시 허용)</li> </ul>	2018.12.20.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li> <li>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li> </ul>	2019.8.1.

자료: 한국은행

###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 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18년 7월 의결한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사업 참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또한 참여 금융기관 및 유통사업자와 협력하여 동 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안정성 테스트, 약관 제정 등이 완료됨에 따라 IT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완료한 참여 금융기관들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회의(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의

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2019년 중에는 디지털화폐 등 논의에 참여하고, 거액결제시스템 보안 강화 및 현대화, 국가 간 소액지급 개선 등과 관련된 CPMI 산하 워킹그룹과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신속자금이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구축 사례 및 향후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